

#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경제학적 의의”

신 동 천

작업장에서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Health Promotion Program: HP)은 우선 대상자에게 접근하기 용이하고 대상집단이 질병 위험요인에 노출될 기회가 많은 취약집단이라는 점과 건강증진사업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주게 된다는 이유로 외국에서는 많이 시행되고 있다.

최근 미국 리시간대학교의 보건대학원과 경영대학원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이러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과연 경제학적으로 이익을 주는 효과적인 사업인가를 1986년까지 보고된 각종 자료를 검토하여 내린 결론에 의하면 몇몇 프로그램은 확실히 경제적인 면에서 까지도 효과적이며 그외에 자료가 불충분하여 경제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이나 할지라도 이것을 이유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저자들은 또한 최근에는 기업도 근로자의 행복이라는 이타적(利他的)인 관심이 커지고 있고 근로자들의 복지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경제학적인 평가를 하는 목적이 비단 기업의 경제적인 동기를 강조하기 때문만은 아니며 이 연구에서는 기업관리의 측면에서 경제적인 면을 중심으로 비용-효과분석에 국한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분야에 관한 그동안의 여러 연구가 있었지만 연구결과가 추상적이거나 연구의 기본가정, 자료나 방법론에 오류가 있는 연구가 많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좀 더 타당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최근까지의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검토하였다.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투자는 그들의 건강상태와 건강에 관한 인식 및 태도를 변화시켜 근로자가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덜 받게 되고 의료비용지출을 감소시키게 된다. 효과는 이에 그치지 않고 생명보험, 불구보험, 산재보상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줄게 되고 유병결근이 줄어들어 생산성이 증대된다. 그러므로 최근에는 보건경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85년 부터 1986년 초까지의 약 650개의 논문을 검토하여 주요한 프로그램 10개를 선정하고 이에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10개의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하여 인용된 논문은 289개에 이르렀다. 평가의 기준으로는 질환의 유병정도와 심각성, 중재(intervention)를 위한 프로그램의 구조, 중재의 효과, 인식 및 태도변화의 보건학적 의의등이며 5명의 전문가가 검토하여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평가결과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이기 보다는 정성적(qualitative)이고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검토된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고혈압, 금연, 영양과 체중조절, 운동, 스트레스, 안전벨트착용, 허리손상방지등에 관한 것들이었으며 이중 고혈압과 금연사업은 특히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근로자에 대한 정기검진만을 시행할뿐 아직 건강증진사업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앞으로 건강검진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며 그럴 경우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산업장에 적용한다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사용되는 비용은 소비가 아니라 재투자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논문은 여러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